

김민재-김영권 '센터백 듀오' 부재... '탈장 수술' 손흥민도 결장 유력

새 진용 클린스만호, 악재를 뚫어라

내일 남미 복병 페루와 평가전 '마수겔이 승리 도전'

남미의 '복병' 페루와 평가전을 앞둔 클린스만호가 주전 센터백 부재에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결장 가능성까지 대두한 악재 속에서 '마수겔이 승리 사냥'에 나선다.

우르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와 6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를 펼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7위인 우리나라는 지난 3월 클린스만호가 공식 출범해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1무 1패(콜롬비아전 2-2 무·우루과이전 1-2 패)에 그쳐 승리에 목이 마른 상태다.

페루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FIFA 랭킹에서 한국보다 6계단 높은 페루는 남미 최강을 가리는 코파아메리카 2021년 대회에서 4강에 오르는 등 탄탄한 전력을 보였다.

하지만 대표팀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않다. 무엇보다 부동의 '센터백 듀오' 김민재(나폴리)와 김영권(울산)이 각각 군사훈련과 부상으로 이달 A매치 2연전에 합류하지 못해 '뒷단속'이 발등의 불이 됐다.

이들의 공백을 고려해 뽑은 권경원(갑바 오사카)마저 소속팀 경기에서 발목인대를 다치면서 클린스만 감독은 12일 소집훈련 시작 직전 수비 자원인 정승현(울산)과 박규현(다나모 드레스덴)을 급하게 호출해

아만했다.

여기에 대표팀의 '중원 살림꾼' 손흥민(산둥 타이산)도 지난달 12일부터 중국 라오닝성 공안 당국으로부터 형사구류 상태에서 조사받는 터라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한다.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클린스만호의 '캡틴' 손흥민이 경기에 나서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밝은 모습으로 체력 훈련을 모두 소화하며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는 중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 보호'를 선택했다.

손흥민은 14일 자체 청백전과 세트피스 훈련 때 제외돼 피지컬 코치와 따로 회복 훈련에 나섰다.

훈련에는 문제가 없지만 슈팅할 때 100% 전력을 쏟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악전고투' 상황에서 페루전을 준비하는 태극전사들이지만 승리욕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특히 3월 A매치를 '벤투호의 유산'으로 치른 클린스만 감독 역시 6월 A매치 2연전은 자신이 직접 관촬해서 뽑은 선수들로 팀을 구성한 터라 좋은 결과를 향한 기대감이 크다.

클린스만호가 3월에 떠나지 못한 마수겔이 승리를 '2전 3기' 만에 화끈한 경기력으로 성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훈련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제3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에서 우승기를 거머쥔 송원대 선수단이 14일 송원대 총장실에서 최수태 총장, 신정훈 스포츠지원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김동재 부장 교수. <송원대 제공>

송원대 세팍타크로 '선전' 회장기, 더블 '金' 레구 '銅'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이 제34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에서 값진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송원대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시 진영스포츠펀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대항부 더블이벤트 결승에서 대구과학대를 2대0으로 꺾고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레구이벤트 종목은 조별리그에서 대구과학대(2-0 승), 목원대(0-2 패)를 상대로 1승 1패를 기록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동신대에 0-2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지난해 장단 첫째 전국체전에서 3위를 기록하며 광주시선수단 선전에 한 몫했던 송원대는 올해 광주시체육회에서 지도자(코치)를 배정받아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으로 경기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신입선수 2명(박진호 태풍 1년·천지민 길러 1년)을 영입해 선수 6명의 탄탄한 전력을 구축한 송원대는 올 시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구슬땀을 흘린다는 각오다.

특히 올해 우정호(피터 2년), 김성훈(태풍 2년)이 U-21 태극마크를 달았고, 강봉교 지도자는 U-21 남자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발되며 송원대 세팍타크로의 명예를 드높였다.

신정훈 송원대 스포츠지원단장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장학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수단을 이끌고 선전을 펼친 김동재 송원대 부장 교수는 "지난해 전국체전 성적으로 광주시체육회 지원금이 증액되고, 올해부터는 KUSF 지원이 더해져 선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많은 대회에 출전해 풍부한 경험을 쌓는다면 올해 전남 전국체전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행 이룬 태극전사들 금의환향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두 대회 연속 4강'이라는 쾌거를 이룬 김은중호가 팬들의 환대속 한국 땅을 밟고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팬들의 아낌없는 환대 속에 환영식장으로 이동한 선수들은 축석 인터뷰 등 공식 환영행사에 참가해 기쁨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은중 감독은 "대회는 끝났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으니 경쟁력을 기질 것"이라며 선수들의 앞날에 대한 선전을 기원했다. /연합뉴스



제41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남자 고등부 k-2 200m와 500m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전남체고 박철웅과 홍정현(가운데)이 시상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체체육회 제공>

전남카누, 전국선수권 '메달 잔치'

전남체고, 박철웅 3관왕·홍정현 2관왕 삼호중 김성현, 청소년국가대표 승선

전남 소속 카누팀이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올해 전국체전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카누연맹은 14일 "지난 12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2023년도 카누 스피리트 청소년대표 선발전 및 제41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전남도청, 전남체고, 목포제일여고, 삼호중 카누팀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남체고는 박철웅이 3관왕, 홍정현이 2관왕을 차지하며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박철웅과 홍정현은 남고부 k-2 500m, k-2 200m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팀 동료 이진솔과 이호준은 k-2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박철웅은 이진솔, 이호준, 조유빈과 팀을 이룬 k-4 200m에서도 금메달을 합작하며 3관왕을 차지했으며, 이진솔, 조유빈, 홍정현과 함께 출전한 k-4 500m에서는 은메달을, k-1 200m에

서는 동메달을 보냈다. 여고부에서는 목포제일여고 김예원, 김한설, 이예진, 이형은이 k-4 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삼호중 김권호, 김성현, 변승진, 신진성은 k-4 200m에서 금메달, k-4 500m에서 은메달, k-2 200m와 500m에서 김성현과 신진성이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김성현은 카누 스피리트 청소년대표 선발전 k-1 500m에서 2분6초895의 기록을 세우며, 전체 5위로 청소년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이밖에 전남체육회 김경민이 c-1 200m에서 은메달, c-1 500m와 1000m에서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전남도청 카누팀(김소현, 김현희, 임성화, 탁수진)은 여자일반부 k-4 200m에서 은메달, k-2 200m에 김소현, 임성화, k-2 500m 김현희, 탁수진, k-1 200m에서 김소현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희중기자

이강인, PSG行 임박

佛 매체 'PSG행 메디컬테스트 완료...이적료 275억원'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 합류가 임박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 스포츠 매체 레퀴프는 지난 13일 "PSG가 몇 주간 작업 끝에 내놓은 놀라운 영입 소식"이라며 "이강인이 국가대표팀 소집에서 복귀하면 PSG와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스페인 매체 엘레보는 "PSG와 마요르카 간 협상이 상당히 진전을 보였고, 양측은 얼른 마무리하길 원한다"며 "선수 측은 PSG와 이미 합의했다"고 전한 바 있다.

레퀴프는 엘레보의 보도를 사실상 확인했다며 이강인 측과 PSG는 장기 계약을 맺기로 이미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강인이 이미 파리에서 메

디컬 테스트까지 완료했으며, 이적료는 최대 2천만유로(약 275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도대로라면, 이강인이 마요르카 소속으로 2022-2023시즌 최종전인 라요 바에카노와 홈 경기를 치른 5일부터 한국에 도착한 7일 사이 현지에서 메디컬 테스트 등 이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역시 트위터를 통해 PSG 입단이 임박한 이강인이 메디컬 테스트를 마쳤고 밝혔다.

앞서 스페인 매체 마르카도 이날 "최근 몇 주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가장 최근 영입 제의를 한 팀이 PSG인 것으로 파악됐다"



마요르카 이강인의 경기 모습.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보도했다.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루이스 캄포스 PSG 스포츠 디렉터가 마요르카 측과 몇 주간 협상해왔는데, 이강인 측에는 1군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이강인은 2022-2023시즌 라리가 36경기에 나서 6골 6도움을 올리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라리가 사무국이 선정하는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